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숨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

이영호 (루터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셰익스피어의 세계
- III. 영국의 종교개혁 속 “루터 사상”(Lutheranism)
- IV. 종교개혁 시대의 인간, “햄릿(Hamlet)”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11>

• ABSTRACT •

Luther's spirit of reformation hidden in Shakespeare's 『Hamlet』

Prof. Lee, Young Ho (Luther University)

Shakespeare's works contain biblical and theological content and ideas. Brecht defined his works as a kind of collective creation and a combination of the knowledge and culture of the era. In particular, among his works, "Hamlet" contains the ideas of Martin Luther, a religious reformer who shook British society. Through this work, the author attempted to present a reformatory human type who would live in the era of the Reformation to contemporary British people. The author's intention was expressed in the work through "Hamlet, a University student at Wittenberg," "emphasis on the inner self," "argument about clothing," "the eternity of God," and "argument of radical reform."

Key words: Shakespeare, Hamlet, Luther, Reformation, Christianity

I. 들어가는 말

지난 500여 년 동안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작품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읽혀 왔고,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의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만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었으며, 언어학적 견지에서도 그의 작품은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 있었기¹⁾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별히 ‘햄릿(Hamlet)’²⁾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단연 최대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햄릿’만큼 많이 읽히고, 상연되고, 연구되어 온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햄릿’이 이렇게 널리 읽히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품 안에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햄릿’은 ‘스핑크스’에 비유되거나, ‘문학의 모나리자’(Mona Lisa of Literature)³⁾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품의 신비로움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숨어있는 성서적, 신학적 내용과 사상들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세력이 약해지고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 혹은 가정의 전통쯤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종교개혁으로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던 셰익스피어 당시의 영국 및 서구 사회에서의 종교는 전혀

1) 김수용, “Hamlet 연구 - 주인공의 성격비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79), 15-17.

셰익스피어 시대 영어는 불규칙하고 신축성이 있어 품사의 변화가 자유로웠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규범이나 속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점이 현대 영어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당시 영어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였다.

2) 본고에서는 William Shakespeare, *Hamlet*, 최종철 옮김, 『햄릿』(서울:민음사, 2016)을 번역본으로 참고하였다.

3) T.S. Eliot, *Hamlet and His Problems* (London: The Sared Wood, 1967), 99.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인간의 삶의 조건과 양식을 결정짓는 신념 체계이고 삶 자체를 희생해서라도 수호되어야 할 절대 가치였다. 무엇보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종교는 긴장과 갈등의 중심이자 원천⁴⁾이 되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시기는 영국 사회가 종교개혁으로 인한 국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와 부작용을 극복해 보려는 정치적, 종교적 노력이 있던 시대였다. 1558년 등극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리 여왕에 의해 가톨릭으로 회귀하던 영국을 다시 개신교 국가로 복구하고 헨리 8세에 의해 설립된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를 중심으로 신·구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셰익스피어 자신도 신·구교 간의 갈등을 예민하게 체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전기적인 면을 몇 가지만 고려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태어난 가정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다. 그가 자란 ‘스트래트포트 어폰 에이븐’(Stratford-upon-Avon)은 구교가 강세인 지방의 보수적인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향을 떠나 신교의 기운이 충만한 런던에 와서 배우 겸 극작가로 활동하였다. 당시 런던은 신교의 영향으로 반가톨릭적 성향을 띄고 있었는데 이런 성향의 가운데는 자국에 대한 애국적 정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변화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던 셰익스피어는 구교 중심의 보수적인 고향에서 성립된 자기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당시 영국에서는 중세 이래로 내려오던 전통적인 가톨릭 드라마를 종교적인 이유에서 억압하고 상업극장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후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셰익스피어의 귀족 후원자들이 대부분 개신교 신앙이

4) Huston Diehl,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Huston: Cornell UP, 1997), 13.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개신교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⁵⁾에 설득력을 갖게 한다. 하지만 세익스피어가 개인적으로 가톨릭인지 신교도인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런 개인의 신앙적 성향이 판단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의 작품 해석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들이 세익스피어의 작품 속의 신학적 신앙적 문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집안 내력과 관련한 전기적 고찰의 입장에서 가톨릭의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었으나 최근에는 세익스피어가 가톨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교의 입장을 취하고 절충해 나아갔는가 하는 점⁶⁾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작품 연구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극작품을 역사적 문맥에서 연구하려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소고를 통하여 가톨릭의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양육되었던 세익스피어가 종교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을 이루어가던 영국의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개신교의 담론과 수사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가져온 사회적 과장으로서의 갈등과 모순을 극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작품 『햄릿』(Hamlet)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햄릿』은 세익스피어의 경험과 사고가 원숙기에 이르렀을 때 쓰인 비극들 중 하나이면서 작가가 신교와 구교 사이의 신앙과 교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종교개혁 중의 영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에 집

5) Huston Diehl, "Religion and Shakespearean Trage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an Tragedy*, Ed. Claire McEachern(Cambridge: Cambridge UP, 2002), 68.

6) Tayer, Dennis, "Introduction: Shakespeare and Reformation", *Shakespeare and the Cultur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England*, Eds. Dennis Taylor and David N. Beauregard (New York: Fordham UP, 2003), 9.

중하여 집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브래들리(A.C. Bradley)에 따르면 『햄릿』은 분명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극’으로 불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다른 어떤 셰익스피어 비극보다 대중적인 종교 개념의 자유사용, 그리고 인간의 선과 악에 관련된 최상의 힘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한다. 밀워드(Peter Milward)는 더 나아가 “셰익스피어 극에서 가장 심오한 영감은 종교적이면서 기독교적이다.”라고 단정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신학은 죽음 그 자체와 그 너머의 것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⁷⁾라고 주장한다. 죽음과 내세에 대한 고민은 당시 종교개혁(Reformation)으로 인한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종교분쟁으로 야기된 종교문제와 연계되어 그의 세 번째 시기의 작품들에 주로 반영된다. 그중에서도 그의 존재론적 고민과 종교에 대한 깊은 사색의 투영이 『햄릿』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II. 셰익스피어의 세계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들이 직조되고 있었던 16세기의 영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급격한 변동의 과정에 있었다. 정치적 권력 구조와 경제적 제도로부터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풍토에 이르는 이 대격변은 우리가 ‘근대적(近代的)’이라고 부를 만한 정신적 혹은 심리적 구조를 형성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화가 가지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근대 사회를 향한 과정의 출발점이자, 이전 시대의 문화가 막을 내리는 ‘커다란 막간의 시대’, 즉, 과도적 시기로서의 성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날학파의 거목인 페르낭 브로델의 제자이자 역사심리학자인

7) 이용관, “햄릿에서의 셰익스피어의 프로테스탄트 유산”, 셰익스피어 학회 편저, 『Shakespeare Review』 46호(2010), 569-570.

자바데이 바르부(Z. Barbu)는 이 커다란 막간의 시대를 ‘펼 펼 끊는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는 이 시기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16세기 영국은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걱정으로 ‘펼 펼 끊는 가마솥’이 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낡은 생활 형태가 붕괴하며, 새로운 생활 형태가 싹트는 전환의 시대였다. 변혁의 분위기만이 이 시대에 연속성을 준 유일한 요소였다.”⁸⁾

바르부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제도의 변화가 사회 문화적 긴장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인간행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특히 교회에서 세속적 권력으로서의 통치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충돌과 긴장, 귀족의 권위 하락과 농노제의 붕괴에 따른 중간 계층, 특히 젠트리(gentry)의 뚜렷한 대두는 전반적으로 권력의 세속화에 따른 이데올로기 지형의 전체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의 급격한 변동은 기존의 윤리와 가치의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 으며, 당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병리적 아노미”라고 부를 만한 심리적 혼란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만약 16세기 영국에서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근대적 지향을 가지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16세기 영국인들의 아노미적 심성 속에서 근대적 주체들의 징후적 태도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향들은 근대적 인간의 탄생과 성장에 의해 매개되고 또 결집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와 심성의 결합이 결합되는 장으로서의 주체의 문제가 탐구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이 점을 해독해 내기 위해서 세익스피어의 텍스트를 작가 개인의 언어

8) Zevedei Barbu, *Problems of historical psychology*,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205.

미학인 “문학”(The Literature)의 형태가 아니라 16세기 문화적 현상인 무대극으로 읽는 관점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문제들을 극적인 형태로 형상화하여 이에 대한 집단적 성찰과 비판, 해결을 모색하는 일종의 사회극(social drama)의 기능을 가지는 16세기의 무대극은, 공연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에 따르면, 중세의 카니발과 근대적 연극의 중간적 단계에 위치한다.

거의 모든 사회에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된 사회이든지 간에, 집단적인 리미널리티(liminality: 집단적 성찰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반성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탈하는 전이(轉移)의 문턱)를 획득하는 명료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 ‘리미널리티’란 말하자면 현실적이고 직설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가정법적인 시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좀더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제의’나 성스러운 ‘제가’가 메타-사회적인 행위가 되어있고, 봉건사회 이전의 사회 및 봉건사회에서는 ‘카니발’ 혹은 ‘페스티벌’이 있으며, 전기 근대사회(pre-modern society)에는 카니발과 ‘연극’이 있고, 진화가 고도로 진행된 최근의 사회에는 영화가 있다.⁹⁾

터너의 논지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은 전통적 공동체성의 마지막 흔적이자 새로운 사회성(the social)-개인들 간의 계약적 실체로서의 사회-의 첫 번째 기록이 교차하는 과도적 형태로서, 동시대에 역사적 문제들이 무대와 관객 간의 소통 속에서 집단적으로 성찰되고 상상적(imaginary)으로 해결되는 장(場)이다.

그러나 일견 연극과 반성이라는 행위만큼 서로 떨어져 있고 이질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연극은 무대, 배우, 청중, 고조된 분위기, 군중들의 냄새와 소리, 조명의 작위적 움직임들로 구성되는 반면, 생각한다든 것은

9)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이기우 외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서울: 현대미술사, 1996), 210.

홀로 조용히 자신의 내부적 사유에 집중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찰행위가 반드시 내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인간의 집단적이고 대화적인 의사소통 속에서도 성찰의 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다. 사실, 연극은 인간적 소통 자체를 예술적 대상으로 삼는 특이한 예술이다. 연극이 대화와 행동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현대의 부조리극이 소통의 불가능성을 그럴 때, 역설적으로 그 소통의 모험은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래서 관계의 예술인 연극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소통의 상황과 온갖 소통의 방식과 그 소통과정을 잘 보여준다. 연극의 구조는 삶의 구조와 가장 가까운 것이다.¹⁰⁾ 터너는 이 집단적 성찰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동체가 스스로를 묘사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집단의 사고'는 공연의 형태를 취한다. 어느 집단 안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음성언어라는 코드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몸짓, 음악, 춤, 도상, 회화, 조각,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언어들은 연극적이며 바로(집단적 사유의) 코드를 공연하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셰익스피어의 무대극은 동시대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문화적 지각변동의 아노미)에 대한 집합적 성찰과 미학적 사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역사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체험하는 장으로서, 즉 모든

10) 피에르 라르토마, *Theories of the Theatre*, 이인성 편역, 연극의 이론(서울: 청하, 1988), p.25.

11) V. Turner, 『체의에서 연극으로』, 217.

문제들을 공동의, 동시대의 문제로 제기하는 이 연극의 공간 안에서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단일한, 동시대적이고 유동적인 사건 속으로 흡수된다. 연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가상적 공동체의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그들의 지위, 역할, 명성, 계급성 및 다른 정치, 경제의 구조적 장애물을 벗어나 공감(共感)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즉 인지적 차원에서든 정서적 차원에서든 꼭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는 순간의 체험인 것이다. 이러한 상호조명의 힘이 그들이 극장을 나오는 순간 개인적 이해와 단독적 이성의 힘 앞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이 자발적 공동체의 체험은 침잠되고 각인되어 은밀한 문화적 경로를 통해 사회 전체에 피드백(feed-back)된다. 다시 말해, 당대의 공동체가 부딪힌 역사적 문제들을 선형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체험적으로 공유하게 만듦으로써 관객들 각자가 이 문제들을 인지하고 수용¹²⁾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창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셰익스피어의 독특한 창작방법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사실 그는 매우 독창적이지 못한 작가 중 하나였다. 그는 역사서, 성경, 신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설화나 시정에 떠도는 이야기 등에서도 소재를 취했으며 귀족의 언어(라틴어와 불어)에서 통속적인 방언의 말씨나 속담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나 자기 연극을 구성할 언어들을 구해서 이어 붙였다. 브레히트는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를 일종의 집단창작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내가 사소한 것이 모여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완성시켰다고 믿게 된 이유

12) 강태경, “셰익스피어의 관객을 부활시키며”, 셰익스피어 학회 편저, 『Shakespeare Review』 34호(1998), 515.

는 한 사람이 이 작품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다만 순전히 기법 면에서 이 작품들이 한 집단의 작업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짜맞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 레퍼토리를 다루는 데 필수적인 옛 작품들의 이용, 꼭 맞는 묘사, 작품들이 지닌 프롭포터용 책 성격, 황급히 운이 맞추어진 부분들, 소박한 연극욕, 재치 있는 손질, 서정시뿐만 아니라 성찰까지도 철두철미하게 비독립적일 정도로 무대에 적합하게 보이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배우 또는 연출가가 쓴 것임을 증명한다.¹³⁾

우리는 앞에서 16세기 영국을 전(前)시대를 지탱해왔던 문화적 기반, 가치와 의미의 망이 찢긴 문화적 아노미의 상태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종교적 정의 국가(state of justice)에서 계약적 사회관계와 국가 이성에 의해 사회가 재조직되는 17세기 중반의 영국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이후의 근대 영국사회로 이전되는 과도기적 단계인 이 위기적 국면은 셰익스피어의 연극이라는 문화적 실천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 가상적 공간에서 역사적 변동은 아직 자신의 적절한 언어에 의해 규정적으로 포착될 수 없었기에 햄릿이 한탄하는 “빗장 풀린 시대(time is out of joint)” 혹은 “부왕의 유령”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 혹은 실체가 없지만 거역하기 힘든 가공할 운명적 힘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 “셰익스피어의 세계”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이 16세기의 가상적 공동체를 외부에서 지배하고 있는 힘, 극 전체에 어떤 불명료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힘은 16세기가 맞이한 전환기적 혼란과 아노미이다.

13) B. Brecht, *Search of New Art*, 김창주 편역, 『새로운 예술을 찾아서』(서울: 새길, 1998), 59.

III. 영국의 종교개혁 속 “루터 사상”(Lutheranism)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고 세속 제후들의 힘을 빌려 교황의 과세권 폐지, 수도원의 해산, 순례제도의 폐지, 성직자의 독신주의와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의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가톨릭의 화체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가톨릭의 7성사(聖事)중에서도 성찬식과 세례식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루터가 무엇보다 중요시한 교리는 ”오직 믿음만으로“였다. 루터의 이신득의(以信得義) 사상은 바울과 어거스틴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 사상은 단순히 신학적인 제언이 아니었다. 이 혁신적인 신교 사상은 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내적 생활과 종교적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에 의해 제기되고 그의 뒤를 잇는 종교개혁가들을 통해 발전된 신과 인간 사이의 반명제는 비타협적인 것이었다. 비참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수도(修道)와 선행(善行)만으로는 하늘의 기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신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지만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인간의 무능함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 인간이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신은 인간을 정당화하고 인간을 신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둔다는 것이다. 요컨대 루터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의 죄가 진실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⁴⁾ 이것이 그의 이신득의(以信得義) 사상의 핵심인 것이다. 루터는 행위와 신앙의 차이점에 특히 유의했다. 루터는 인간에게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된 인간이 겸손한 자세로 신의 자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14) 홍치모, 『종교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77), 63.

보았던 것이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95개조 논제를 제시했을 때에도 그는 로마교회로부터 이탈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 초 루터의 사상은 공고했던 가톨릭 교회의 세상을 흔들었다. ‘신의 은혜의 강조’, ‘교황 지상권의 부정’, ‘성서제일주의’, ‘만인사제주의’ 그리고 ‘진정한 중재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외친 루터의 혁신적인 종교개혁사상은 가톨릭의 기본 의식들을 황폐하게 하였다.¹⁵⁾ 또한 루터의 주장은 교회의 예식적인 면에서도 혁신적이어서 성찬식의 주목적은 개인적 신앙 강화에 있고 미시는 선행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교회 안의 오랜 관습인 성인 숭배, 순례, 참회, 사면, 면죄부, 고인을 위한 미사 등 로마 교회의 많은 제도와 관례들도 뿌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영국의 종교개혁 즉,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신앙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원인에 의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영국 종교개혁의 요인들로서는 주변적 환경, 국민감정과 신앙적 반성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사제의 허식에 대한 혐오감은 유럽 전역에 걸쳐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정통적 신앙의 표본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도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를 보다 못해 비판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교회가 소유한 부로 인하여, 그리고 부를 위한 헛된 목표 때문에 교회는 평신도들의 증오심을 사고 있었다. 영국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의 수중에 있었다. 교회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강제적 징수와 날로 늘어나기만 한 각종 교회 세금들로 인해 국민의 원성은 커져만 갔다.¹⁶⁾ 오래전부터

15) W. Hordern, *A Laymans Guide to Protestant Theology*(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86), 23.

16) G. R. Elton, *The Reformation in England in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II(Cambridge: Cambridge UP, 1958), 226.

있어 왔으나 이 시기에 점점 더 강해져 간 이런 전국민적인 감정들은 일반적으로 반교권주의(反敎權主義)라고 요약되었다. 반교권주의는 이단이 영국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영국인들은 형식적으로 경건했고 전통적 신앙에 고착되어 있었다.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과 롤라드(Lollard) 운동¹⁷⁾은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무서운 세력은 여러 대학에 파급되기 시작한 “루터사상(Lutheranism)”이었다.

1524년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 출판했고 캠브릿지(Cambridge)에서는 “소독일(小獨逸)”이라 칭하는 토론집단이 생겨 루터의 설교에 대한 학구적 활동¹⁸⁾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소(小)캠브릿지 교회당에 모여 영국의 종교개혁운동을 진행한 것이다. 근처에는 백마(White horse)라는 선술집이 있었는데, 이곳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였다. 이후 이들 모임의 이름이 ‘백마’가 되었으니¹⁹⁾ 이곳이 영국 종교개혁의 진정한 진원지였던 셈이다. 영국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지도자들인 틴데일, 로이, 바르네스, 커버데일, 빌레이 라티머 등은 주로 종교적인 설교와 저술에 종사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고위직책에 다수 취임하였고, 또 일부는 이단적 신앙의 고집으로 처형당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선술집 백마(White horse)에서 처음 만나 주로 루터 사상(Lutheranism)에

17) 성경이 신앙의 중심이요, 설교가 성직자의 중심 의무이며, 화체설은 거짓임을 주창했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부인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14세기 영국의 교회개혁세력이다. 헨리4세와 5세 때에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1500년대에 들어와 잉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신교와 결합하여 종교개혁의 대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롤라드’라는 말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Alistair Mcgrath, 박규태 역,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178-179. 참조.

18) G. R. Elton, *The Reformation in England in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II. (Cambridge: Cambridge UP, 1958), 228.

19) Alistair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177-179. 참조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런던의 상인들도 루터의 개혁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런던에 체재하던 외국 상인들도 루터주의의 전파에 한몫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유럽대륙으로부터 루터의 서적들을 수입하고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영국에 배포²⁰⁾하였다. 루터의 사상(lutheranism)은 태생적인 국제적 관련성과 반가톨릭주의 그리고 유럽 전역을 누비는 프로테스탄트 상인들의 활동으로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의 교의(敎義)와 예배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도 로마 교회와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국왕은 영국에 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척까지 하였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정치적 종교개혁이 종교적 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즉 프로테스탄트 사상(Protestantism)을 받아들인 소규모 성직자들의 집단은 그들의 때가 도래했다고 믿었고, 대주교도 토마스 크롬웰도 신교 사상을 선호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운동의 여파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은 것에 불안을 느낀 크롬웰은 독일 내 루터파 제후들과 동맹체결을 요구²¹⁾하였다.

1536년 헨리 8세의 뜻에 따라 10개 조의 신조가 공포되었다. 이 10개 조는 루터 사상(lutheranism)과의 타협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국왕의 정통적인 교의적 견해와 보수적 집단의 견해가 나타나 있기도 하다. 제1조는 성직자의 교육적 기능과 신도들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2조는 전통적 의미에서 세례를 정의하고, 신은 우리의 옳은 행위가 아니라 세례와 신의 자비로써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3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참회와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

20) A. G. Dickens, *The English Reform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84), 26.

21) Alister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179-185 참조.

한 신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제6조는 예수와 마리아상 앞에서의 기도행위는 가하나, 진정한 제사는 신에게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했고, 제7조는 신자들이 성인들을 존경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신앙과 영광은 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8조는 신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는 성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상기시켰고 9조는 의식 자체가 죄를 사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10조는 사자의 명복을 비는 것은 좋으나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고통의 정도는 어떠한지 성경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의 연옥관은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²²⁾하였다.

이것은 10개 조가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당시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연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왕령은 또한 모든 교구에 영어 성경을 비치할 것을 명하였다. 1539년에 등장한 공식적인 번역판은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사상(Protestantism)의 확립을 위해 하나의 특정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1530년대에는 영국의 종교적 국면은 좀 더 복잡해지고 신·구교의 교파가 모두 분열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발생한 1530년대야말로 교리적으로 보아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영국의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주장보다 더 크게 수행되었던 것이다. 헨리8세는 종교개혁의 방향을 급진주의적인 쪽으로 몰고갈 수도 있었다. 헨리8세는 만약 루터가 가톨릭의 제도와 교리를 배격하지 않고 성직자들의 비리를 공격하는 정도로 끝냈다면 영국의 모든 백성들을 루터교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개혁을 일으킬 수 없었다. 영국 종교개혁의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결국 1529년

22) A. G. Dickens, *The English Reform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84), 87.

말 반교권주의적 의회가 소집되어 국왕에게 충성을 표시하고 성직자들의 특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국왕의 의도에 동의함으로써 마침내 영국 국왕은 과감한 종교개혁의 조치들을 취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IV. 종교개혁 시대의 인간, “햄릿”(Hamlet)

셰익스피어는 영국 종교개혁의 긴 여정 가운데 초기 시대를 산 종교개혁 일 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다.²³⁾ 종교개혁의 파장은 신·구교의 극단을 오갔지만 결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초석은 종교개혁 일 세대에 이미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합정책이 실현되었고, 이론적으로는 후커²⁴⁾의 신학체계가 빛을 보았으며, 극장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왕성하게 극작 활동을 하던 때이다.

빅터 터너는 문학작품이 현실의 반영이지만 그 과정이 늘 투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는 가운데 해석을 가하며, 사건에 대한 독자나 관객의 이해에 개입하고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소망과 기대를 드러내는 법²⁵⁾이다. 이런 시각에서 영국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던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가 극작의 방법을 통하여 영국 종교 개혁에 기여한 부분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의 작품 〈햄릿

23) Diehl, Huston, “Religion and Shakespearean Trage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an Tragedy*, Ed. Claire McEachern, (Cambridge: Cambridge UP, 2002), 86.

24) Richard Hooker는 신·구교 간의 통합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인간의 이성만 타락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회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올바른 이성”(right reason)에 의지하여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탐색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Rivers, Isabel, *Classical and Christian Ideas in English Renaissance Poetry* (London: Gorge Allen& Uwin, 1979), 116.

25) Huston Diehl,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Huston: Cornel UP. 1997), 3.

(Hamlet)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셰익스피어와 영국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 사상(lutheranism)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햄릿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린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 수학하던 유학생이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대학이다. 무엇보다 이 대학은 루터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대학이었다. 1502년 작센의 통치자였던 현자 프레데릭은 비텐베르크에 대학을 설립해도 좋다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허가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 전통이었던 교회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현자 프레데릭은 대학교 개교 이후에 교황에게 인가를 요청했지만 비텐베르크 대학교는 교회 당국의 인가 없이 설립된 독일 대학교가 되었고, 사회통념상 교회로부터 전통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의 보고로부터 조달해야 했던 특이한 역사를 가진 대학²⁶⁾이다. 하지만 현자 프레데릭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정과 지혜로운 전략은 1505년에 입학생을 1,204명이나 받게 되었고 독일 대학교 중에서 쾰른, 에어푸르트, 그리고 라이프치히 다음으로 네 번째 위치의 대학²⁷⁾이 되었다. 이렇게 특이한 설립과정의 역사를 가진 비텐베르크 대학은 1508년 부임한 말틴 루터를 통하여 교육 개혁을 일으키고 대학 교육 개혁을 통해 이룬 교육적 명성과 교수로서 봉직하며 루터가 써서 발표한 논문들과 95개조 논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독일의 작은 소도시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대학과 교수 말틴 루터는 전 유럽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26) Marilyn J. Harran, *Martin Luther: Learning for Life*, (St. Louis: concordia PH, 1997), 103-104.

27) Maria Grossmann, *Humanism in Wittenberg 1485-1517* (Niewkoop: B, De Graaf, 1975), 56.

그러므로 셰익스피어가 덴마크의 왕자, 햄릿의 유학지를 비텐베르크로 설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질 홀(Basil Hall)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영국에서 루터적 사고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프로테스탄트 영국민들의 다수는, 거의 예외 없이, 교황에 반대하는 루터의 입장과 신앙의인(justification by faith)의 진실을 재발견한 루터의 위대한 통찰력에 대해 그를 존경했다.”²⁸⁾

“헨리 왕의 죽음으로 영국은 전면적으로 루터적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다.”²⁹⁾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햄릿은 르네상스 시대에 단초를 보이던 루터의 신학을 받아들인 구성체로 보인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 봉화를 올린 비텐베르크의 유학생으로서 생활했었다는 사실은 햄릿의 취향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종교 개혁적 인물의 특성은 종교귀의적인 사고에 힘입어 죽음을 넘어서는 초월적 태도로 인해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태도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자신과 주변을 ‘염려’하고 상황을 ‘알고 파악하려는’ 의지는 매우 악화되며 자신의 힘이 상황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태도를 수용하게 되는데, 햄릿에게서 이와 같은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을 입고 있는 햄릿의 모습을 보고 햄릿의 어머니 왕비 거트루트는 “왜 너에게는 죽음이 그토록 유별나게 보이느냐

28) Basil Hall, “Lutheranism in England” *Reform and Refomation: England and the Continent c1500-c1750*. Ed. Derek Baker. (Lundon: Published for the Ecclesiastical History Society), 107.

29) 위의 책, 104.

냐?”라고 묻는다. 이것은 당시 영국에서 극단적 신교파였던 퓨리탄에 대한 영국민들의 관습적 비판이며, 왕비의 질문에 대한 햄릿의 대답은 퓨리탄 설교의 특징적 수사와 어투를 보여주고 있다고 크리스 하셀(Chris Hassel)은 주장³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집중하면서 햄릿의 대사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햄릿: 왕비마마,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저는 ‘보인다’는 말을 모릅니다. 비단 제 검은 외투만 그런게 아닙니다. 어머니. 관례적인 검은 상복으로도, 억지로 토하는 한숨 소리도,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눈물도, 실의에 빠진 표정도, 슬픔을 표현하는 온갖 형식과 기분과 모양새로도, 진실로 제 심경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보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나 제 속에는 겉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단지 비애의 의상이자 장신구에 불과합니다.³¹⁾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면’이다. 햄릿은 자신의 관심은 외면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내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마음의 눈”, “마음”, “가슴”, “양심”, “마음 속의 비밀” 등의 단어들 이 극의 중요장면에서 사용되었다. 월터 코헨은 이런 내면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개신교적 취향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또 캐터린 이사먼 모스는 당시 영국의 상황에서 신·구교 간의 역사적 갈등이 영국국민들로 하여금 외면의 종교로는 국교회를 따르지만 내면적으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러나 이것

30) 황효식, “햄릿과 영국의 종교개혁”, 셰익스피어 학회 편저, 『Shakespeare Review』43호(2007), 380.

31) William Shakespeare, , 『햄릿』, 22.

32) 위의 책, 381.

은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적인 삶과 외면적 삶에 대한 일치에 대한 신앙고백적 삶에 대한 신학을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루터는 95개조 논제에서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면죄부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이것은 단지 교회법에 의해 교회가 부여한 외적인 형벌을 풀어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³³⁾ 루터의 면죄부 비판은 참 회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었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정책의 근간이었던 종교적 의식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문자가 아니라 영의 주님이시며 그의 말씀들은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요 6:63), 그는 영과 진리로 행해지는 회개를 가르치시는 것이지, 가장 무례한 위선자들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거나(마:16) 가두에서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을 선전하는 등의 공개적인 행위에 의해 나타내는 것과 같은 회개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마 6:12)를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회개하고 자신에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³⁴⁾

루터는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를 가리켜 ‘성례전적 참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례전적 참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명하시는 십자가가 될 수 없다.(제2조항)”고 하면서, 성례전적 참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내면적 참회, 곧 ‘복음적 참회’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참된 회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제4조항)라고 하였다.

세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하여 루터가 이야기한 이 ‘참된 회개’에 대하여

33) Reinhard Schwarz, *Martin Luther*, 정병식 역, 『마틴루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99.

34) Martin Luther, 편집부, 『루터선집』5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4), 84-85.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아간다. 햄릿은 내면적이고 참된 회개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인 클로디어스가 깨닫기를 원하였다. 햄릿은 클로디어스의 양심의 찢림을 원하며 연극을 공연한다. 이것은 성공적이었고 클로디어스는 형제 살해의 죄에서 오는 괴로움에 참회의 기도를 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햄릿은 우연히 어머니의 내실로 향하다가 클로디어스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클로디어스의 회개는 자신도 인정하거니와 현재 죄로 얻은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에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죄의 대가로 인한 괴로움이 클로디어스 왕에게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징벌의 고통일 뿐이지 구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왕: (폴로니어스 퇴장)

오! 내 지은 죄가 추악하구나. 그 악취가 하늘에까지 풍긴다. 그건 인간에게 내린 최초의 저주 때문이지. 형제 살해의 저주 말이야. 기도를 할 수도 없군. 그렇게 하고픈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무거운 죄의식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짓누르고 두 가지 일에 양다리 걸친 사람처럼 무얼 먼저 할지 망설이다가 둘 다 그만두고 마는구나. 이 저주받은 손이 형제의 피로 떡칠했다 한들 하늘이 흠뻑 비를 내려 백설처럼 하얗게 씻어줄 수는 없는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비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이중 효력 때문이지 않던가? 죄짓기 전에 미리 막아주든가, 또는 죄 지은 후에 사해 주든가. 그렇다면 나도 기도를 올려보자. 내 잘못은 과거의 일이지. 하지만 내 경우에 적합한 기도는 어떤 형식이어야 할까? ‘내 추악한 살인죄를 용서해주시오’라고 해야 하나? 그럴 수는 없어. 그 살인 덕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얻었지. 왕위며, 야망이며, 왕비까지 죄다 그런 셈이지. 용서를 받고 그 죄의 결실은 그냥 간직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혼탁한 흐름 속에서는 죄인의 손에 황금이 들려 있으면 정의가 밀려나고, 부정한 상금으로 범마저도 매수하는게 다반사지.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아. 눈속임이 통할 리가 없지. 거기에서는 만사가 참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우리의 잘잘못도 속속들이 진상

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어쩔담? 무슨 방도가 없는가? 뉘우치는 시늉이라도 해보자. 그게 소용이 있을까?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가련한 신세여! 아, 가슴 속이 시체처럼 시커멓구나! 아, 내 영혼은 뒷에 걸려서, 풀려나려고 애쓸수록 더욱 움매이는구나! 도와다오, 천사들이여! 어디 한번 시도해보자. 자 굽혀라, 이 뻣뻣한 무릎아. 강철을 감은 심장이, 갓 태어난 아기의 힘줄처럼 부드럽게 꺾여라. 다 잘 되겠지.

(왕이 무릎을 꿇는다. 햄릿 등장)³⁵⁾

햄릿은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파악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는다. 교리적으로 햄릿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인식과 통찰에 머물 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이성적 방법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햄릿: 지금 그 일을 할 기회로군.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 일을 실행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천국에 갈 테고 나는 복수를 한 것이겠지. 이걸 좀 재고해 봐야겠는걸. 악당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외아들인 내가 이 악당을 천국에 보낸다? 저런, 그건 일했다고 돈을 주는 꼴이지, 복수가 아니잖아. 저놈이 내 아버지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오월의 신록처럼 온통 죄에 뒤덮인 상태에서 무참히 죽었어.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늘 말고 그 누가 알 것인가? 하지만 이 세상의 관습대로 보자면 그것은 중죄야. 그런데 내세를 향해 그의 영혼을 정화하고 있는 중에 그를 죽이면 복수가 되겠는가? 아냐. 멈춰라, 검아, 좀 더 처참한 꼴이 되게 할 때를 엿보자. 만취하여 참자리의 쾌락에 탐닉하거나 노름에 빠지거나, 천벌을 받을 욕을 하거나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하면, 그런 때에 그를 치자. 그러면 발꿈치가 거꾸로 들린 채 자빠지고 그의 영혼도 저주받아 꺼렇게 타서

35) William Shakespeare, 『햄릿』, 123-124.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테지.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했지. 지금 네 놈이 기도
한댔자 기껏 고통의 날을 늘릴 뿐이야.

(퇴장)³⁶⁾

그는 호레이쇼에게 “천지에는 철학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많
다.”고 했었다. 험릿은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행했던 대학개혁을 통해,
신앙적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다. 그러나 그는 혼란한 조국, 덴마크로 돌
아와서는 오직 이성적 추론에 집중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
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들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늦추고만
있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조항을 작성
하였다. 그것은 단지 교회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면죄
부 사상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
로 보였다. 루터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³⁷⁾ 루터
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학문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다. 루터는 이 문제를
영혼 치료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딪쳤다. 고해성사를 듣는 데 익숙해
있던 사제의 입장에서 그는 면죄부 문제가 그의 양무리들에게 야기한 끔
찍한 결과들을 발견한 것이다. 면죄부는 신도들에게 피상적 경건을 조장
하였고, 기독교인들을 구원의 참된 근원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당시 교회
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미 용서된 죄에 대하여 합당한 일시적 징벌은,
속죄로 드리는 보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면죄부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용서될 수 있다.”³⁸⁾ 교회는 고해성사를 버리지 않은 채, 성자들의 여분의

36) 위의 책, 124-125.

37) William C. Placher, *Bachelor of Christian Theology*, 박경수 역, 『기독교 신학사』(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47.

38) Alistair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83-84.

행위로 구성된 공로의 보화에서 그들의 공로를 끌어내어 오면서 용서받은 죄인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여겼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황 식스투스 4세 이후 면죄부가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면죄부에 대한 첫 설교를 한 지 꼭 일 년 후 루터는 만성절 전날에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한다. 루터는 신학자들을 일깨워 이 문제를 숙고하게 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의 효능을 묻는 95개 조항을 작성한 것이다.³⁹⁾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무슨 새로운 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것을 상기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면죄부가 신자의 영혼 구원과 그 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하였다.⁴⁰⁾ 루터는 95개조 조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체 사람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했다”(제1조)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성스러운 구원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의미에서, 모든 삶은 ‘회개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인류를 죄에 대한 모든 벌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95개조를 통해 나타나는 면죄부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진실로 온건하였다.⁴¹⁾ 하지만 그 속에는 독일인들의 불평에서부터, 깊도록 영혼의 씨름을 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금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커다란 소동⁴²⁾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39) Richard Stauffer, *Reformation*, 박건택 역, 『종교개혁 (1517-1564)』(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16.

40) 위의 책, 18.

41)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이형기 역, 『루터 연구 입문』(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73-74.

세익스피어의 〈햄릿〉 속에서 햄릿은 궁정을 방문한 유랑 배우들에게 당시 극장의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 이에 대해 한 배우가 이렇게 답한다.

배우1: 왕자님, 저희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꽤 고쳤습니다.

햄릿: 아니지, 전부 뜯어고쳐야 하네.⁴²⁾

배우의 대답에 햄릿은 전부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시 영국 사회 속에서 개혁에 대한 온건파와 급진파의 대화를 희화화한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햄릿은 이상적인 연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기는 대사에 대사는 연기에 맞춰져야 한다. 특히 지켜야 할 것은 자연의 절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연극의 목적을 벗어나는 법이다. 연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자연을 거울에 비추어서 미덕은 미덕의 모습으로 악은 악의 형태로 그대로 비쳐내며, 시대의 참다운 모습을 본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⁴⁴⁾

햄릿은 연극의 외관과 실재, 즉 형식과 내용, 불거리와 의미의 일치를 주장한다. 그러한 일치가 이루어질 때, 그는 연극이 관객의 양심을 흔들며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흠, 내가 들은 바가 있다. 죄지은 자가 연극을 보다가 절묘한 극적 재현에 그 혼이 감동되어, 즉석에서 자기의 죄과를 털어놓았다지 않는가.⁴⁵⁾

42) 지원용, 『말틴 루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83.

43) William Shakespeare, 『햄릿』, 103.

44) 위의 책, 102.

햄릿은 극 중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완벽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두운 밤, 엘시노어 궁에서 유령을 기다리다 연회에서 왕의 축배를 맞추어 발사된 예포 소리를 듣고는 폐기되어야 할 관습이라고 말한다.

햄릿: 음 한심하게도 그렇다네. 나도 이곳 태생이고 풍습에 익숙하지만, 이 술 마시는 관습은 지키기보다 깨는 것이 더 명예롭다고 생각하네. 이처럼 온 나라가 만취하도록 마셔대는 통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웃음당하고 욕을 먹지. 우리를 주정뱅이라고 부르고 돼지에 비유하여 우리의 명성에 흠칠을 한다네. 이 술 마시는 관습 때문에 제아무리 훌륭하게 공적을 쌓더라도 우리의 평판은 알맹이가 빠진 꼴이 되지. 개개인의 경우도 종종 마찬가지라네. 그들 속에 있는 어떤 타고난 오점 때문인데, 그건 그들 탓이 아니지. 천성이란 출신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 체질의 요소가 과도해져서 자주 이성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어떤 습관이 너무 지나쳐서 예법을 짓밟기도 하지. 이들은, 오점이 하나 찍혀 있어도, 자연의 선물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그 외의 장점이 은총처럼 순수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싸잡아서 욕을 먹지.⁴⁶⁾

또 오피리아가 전에 햄릿이 준 사랑의 정표를 되돌려 주면서 “향기가 사라졌으니 가져가라.”고 말하는 대사에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식들에 대한 종교개혁적인 의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의 예식들은 신앙심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용도가 역전되어서 신앙심을 대신하는 위치에 예식이 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의 정표도 정표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정표가 의미하는 내용이 없어졌다면 정표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45) 위의 책, 103.

46) 위의 책, 38-39.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한 구교회의 예식들의 경우로 확대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모든 교회의 예식을 폐기하자고 극 속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피리어가 자살자이기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애석함에 대한 대화 장면에서 그리고 햄릿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라 명하는 햄릿 대신 덴마크의 왕이 될 포틴브라스의 연설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는 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소중한 유산들을 지키려 노력하였던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⁴⁷⁾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예식은 본질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햄릿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였으며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에 대한 복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햄릿은 여러 가지 상념과 깊은 사색으로 번번히 복수를 지연시킨다. 그러던 그가 극의 결말부에서 우연을 가장한 신의 섭리에 따른 복수를 하게 된다는 설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종교개혁적 인간’으로서의 햄릿의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극의 결말부에서 햄릿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전의 애상이나 체념의 정서가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를 클로디어스의 계략 속으로 뛰어들다. 불길한 예감이 드니 검술시합에 응하지 말라고 말리는 호레이쇼에게 햄릿은 이렇게 답한다.

47) Alistair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100-101. 참조. 루터가 교회의 삶과 사상을 개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광기에 취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것이 아니었다.

햄릿: 조금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예감을 믿지 않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에도 특별한 섭리가 있는 법이지. 죽을 때가 지금 오면 장차 오지 않을 것이야. 장차 오지 않는다면 지금 오겠지. 지금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 것이야, 마음을 준비해 둘 따름이라네. 아무도 죽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일찍 죽은 들 대수로운 일인가? 순리를 따르세.⁴⁸⁾

햄릿이 극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은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superintendence)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케네쓰 S. 로스웰(Kenneth S. Rothwell)은 이전의 햄릿을 외부 세계를 지배하려는 원심적 인간형의 르네상스인으로 보는 반면, 극 후반부의 변화된 햄릿은 내면 지향의 구심적 인간형으로 종교개혁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햄릿의 극적인 변화 부분을 종교적인 깨달음⁴⁹⁾으로 바라보았다.

햄릿이 계획하던 클로디우스 왕의 살해 계획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폐륜을 저지른 숙부에 대한 복수였다. 그러나 한나라의 왕을 살해함으로써 생기게 될 무질서를 햄릿은 걱정해 왔다. 자신의 복수로 생겨날 무질서에 대한 책임 또한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햄릿은 정당한 복수의 기회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의 복수가 정당하고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는 신의 ‘의도’와 국가 질서 내에서, 혹은 제도적, 윤리적 질서 내에서 개인의 의지가 통할 수 있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햄릿은 그러한 좌절 속에서 영국으로 가던 바다에서 겪은 경험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친구인 호레이쇼에게 이렇게 말한다.

심사숙고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때로는 무모한 행동이 도움이 되는

48) William Shakespeare, 『햄릿』, 198-199.

49) 황효식, “햄릿과 영국의 종교개혁”, 386.

경우가 허다하니 말이야.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일을 대충 벌여 놓는다 해도
그걸 말끔하게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해. 50)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이던 햄릿은 세상의 무질
서만을 원망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결국 햄릿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레어티스와의 검술 시합은 햄릿의 복
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검술 시합이 진행되는 중 이를 지켜보며
긴장한 왕비는 햄릿을 죽이기 위해 왕이 준비한 독배를 마신다. 난투극을
벌이던 햄릿과 레어티스는 결투 도중 칼이 바뀌어 서로에게 독이 묻은
칼로 상처를 입힌다. 왕비는 독배를 마시고 죽어감으로써 왕이 햄릿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고 ‘뜻밖의 재판’은 순식간에 햄릿에게
정당한 복수의 자리를 마련해주게 된다. 클로디어스의 죄악은 만천하에
밝혀지고 참석한 군중들은 ‘역모’를 외친다. 햄릿은 배심원들의 동의하에
복수를 마무리한다.

셰익스피어는 주인공의 내면적인 갈등을 우연이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
적인 신의 섭리를 개입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 아무리 복수의 명분이
강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세계에 있는 햄릿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복
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클로디어스가 죽고 난 후에 일어
나는 햄릿과 레어티스의 화해 장면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레어티스는 죽기 전에 햄릿에게 화해를 청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왕자님! 저와 제 아버지의 죽음을 왕자님 탓으로
돌리지 않을 테니, 당신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51)

50) William Shakespeare, 『햄릿』, 189-190.

51) 위의 책, 205.

햄릿은 “하늘이 자네의 죄를 사해 주기를 빌겠네”라고 답한다. 햄릿은 결투가 있기 전 인간 행위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클로디어스의 죽음도 신의 뜻이지만 두 사람의 화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햄릿은 죽음의 직전에 마지막 정리를 한다. 그는 친구 호레이쇼에게 현왕을 살해하게 된 이유를 알려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부탁한다. 그의 살인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념, 공공의 가치 파괴자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햄릿은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독 뭍은 칼에 찔려 바닥에 두 팔 벌려 쓰러진 그의 시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하셨다는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희생을 통하여 악의 정화와 질서의 복원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필자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드라마 속 주인공 공 “햄릿”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새로운 영국의 기독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조국 영국의 교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햄릿”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영국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V. 나가는 말

종교개혁은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 갔지만 유럽적인 모델과는 달리 신·구교 간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긴 과정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정책, 신학적으로는 물밑듯이 밀려온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Lutheranism)과 후커가 이룩한 국교의 교리체계가 이런 흐름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셰익스피어도 작가로서 극작의 방법으

로 종교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 재연함으로써 극작가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정에 이바지하였다고 본다. 특별히, 그의 작품 『햄릿』은 급박하게 변해가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면서 셰익스피어가 몸소 체험한 갈등과 모순들을 시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사상을 가지고 드라마를 완성하였다. 그는 루터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기독교 시대를 맞이하는 조국에게 극작을 통하여 타협하고 중재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종교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동시대적 문맥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긴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문학을 종교에서 분리시키고자 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의 비평에서 종교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시대가 종교의 시대였고 종교개혁의 열풍은 새로운 종교의 시대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그런 시대 속의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면서 종교를 배제하고 논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속에는 새로운 기독교 국가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인에 대한 제시를 극 속에서 하고 있었다. 특별히 4막까지 클로디어스의 죄악을 파헤치는 것과 그에 대한 복수 욕구에 사로잡혀있던 햄릿이 5막에 이르러 전혀 다른 태도로 죽음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것은 햄릿이 구원을 갈망하는 기독교적 태도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적인 사고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폭스(Foxe)는 루터를 교황의 (종교의) 변형으로부터 종교를 회복시킨 선봉에 있는 인물”⁵²⁾이라 정의하였다. 종교의 회복은 프로테스탄티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햄릿이 수학하였고 루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풍과도 연결된다.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하고 생활했

52) Wilhelm, Pauck, *Interpreters of luther*. (Philadelphia: Philadelphia UP, 1968), 109.

던 햄릿은 루터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햄릿이 5막에서 정신의 지체, 은총, 신에게로의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햄릿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물질적 소유물을 추구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햄릿은 죽음을 통과해 또 다른 세계로 향해간다. 5막에서 해골에 관해 명상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햄릿의 태도는 프로테스탄트적인 종교성의 외면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자기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욕망에서 벗어나 죽음을 수용하는 종교적 구원을 신뢰하는 하는 태도를 햄릿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게 영원한 삶의 구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루터는 말한다.

“모든 두려움과 떨림은 불신앙으로부터 생기며, 모든 확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다.”(99개조 논제 제16항 해설)⁵³⁾

극의 초반에 햄릿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활기 있게 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5막에 이르러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레티어스와의 게임을 하며 죽음을 수용하는 햄릿의 태도는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에 가능한 존재를 되찾은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다. 이런 종교개혁적 성향을 드러내는 햄릿의 모습은 그 안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시대의 상황과 지배적 문화가 작가에 의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작가 세익스피어는 자신의 조국 영국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 혼란에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조국의 교

53) Martin Luther, 『루터선집』5권, 122.

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드라마 ‘햄릿’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드라마에서 제시하는 새시대의 인간상인 햄릿은 종교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였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 지원용. 『말틴 루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홍치모. 『종교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77.
황효식, 『햄릿으로 읽는 세계』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0.

•번역서

- 피에르 라르토마, *Theories of the Theatre*, 이인성 편역, 『연극의 이론』, 서울: 청하, 1988.
Barbu, Zevedei, *Problems of historical psychology*,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Brecht, B. *Search of New Art*, 김창주 편역, 『새로운 예술을 찾아서』, 서울: 새길, 1998.
Lohse, Bernhard, *Martin Luther -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이형기 역,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Luther, Martin, 편집부, 『루터선집』 5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4.
Mcgrath, Alister,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the protestant revolution—a history*, 박규태 역,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Shakespeare, William, *Hamlet*, 최종철 옮김, 『햄릿』, 서울: 민음사, 2016.
Stauffer, Richard. *Reformation(1517-1564)*, 박건택 역, 『종교개혁 (1517-1564)』,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Schwarz, Reinhard, *Martin Luther*, 정병식 역, 『마틴루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Turner, W.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 이기우 외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논문

- 강태경. “셰익스피어의 관객을 부활시키며”, 『Shakespeare Review』34호. 1998,

512-541.

김수용. 「Hamlet 연구-주인공의 성격비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79.

이용관. “햄릿에서의 셰익스피어의 프로테스탄트 유산”, 『Shakespeare Review』 46호, 2010, 560-581.

황효식. 「햄릿과 영국의 종교개혁」, 『Shakespeare Review』 43호, 2008, 305-332.

•외국 서적 및 논문

Basil, Hall, “Lutheranism in England” *Reform and Refomation: England and the Continent c1500-c1750*. Ed. Derek Baker. Lundon: Published for the Ecclesiastical History Society, 105-132.

Diehl, Huston. “Religion and Shakespearean Trage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an Tragedy*, Ed. Claire McEachern, Cambridge: Cambridge UP, 2002, 6-88.

Diehl, Huston.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Huston: Cornell UP, 1997.

Dickens, A. G. *The English Reform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84.

Dennis, Tayer. “Introduction: Shakespeare and Reformation”, *shakespeare and the Curltur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England*. Eds. Dennis Taylor and David N. Beauregard. New York: Fordham UP, 2003.

Eliot, T.S. *Hamlet and His Problems*, London: The Sared Wood, 1967.

Elton, G. R. *The Reformation in England in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II, Cambridge: Cambridge UP, 1958.

Dickens, A. G. *The English Reform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84.

Grossmann, Maria. *Humanism in Wittenberg 1485-1517*, Niewkoop: B.De Graaf,1975.

Hordern, W. *A Laymans Guide to Protestant Theolog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86.

Harran, Marilyn J. *Martin Luther: Learning for Life*, St. Louis: concordia PH, 1997.

Pauck, Wilhelm. *Interpreters of luther*. Philadelphia:hiladelphia, 1968.

Rivers, Isabel. *Classical and Christian Ideas in English Renaissance Poetry*,
London: Gorge Allen& Uwin, 1979.

논문투고일: 2024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국 문 초 록 •

Shakespeare의 작품 속에는 성서적, 신학적 내용과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다. 브레히트는 그의 작품들이 일종의 집단 창작이며 시대의 지식과 문화들의 결합체라 정의하였다.

특별히 그의 작품 가운데 “햄릿”에는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사상들이 내재되었다. 작가는 동시대의 영국인들에게 이 작품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아갈 종교개혁적인 인간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작품 속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생인 햄릿”, “내면에 대한 강조”, “의복에 대한 주장”,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급진적 개혁의 주장” 등을 통하여 나타냈다.

주제어: 셰익스피어, 햄릿, 루터, 종교개혁, 기독교
